

로컬푸드 어양점, 임시회마저 제동

익산시의회, 위탁 동의안 부결 결정... 시민 불편 가중 우려 시, 시내 권역 직매장 위주 출하처 확보 · 판로 확보책 마련

익산시의 긴급 임시회 소집 요청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등의 안이 익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운영 중단이 현실화됐다. 농민들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시는 23일 열린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어양점은 기존 수탁 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해 운영을 정상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

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익산농협 5개소(평화·모현·인화·동산·어양), 익산원예농협, 금마농협, 삼기농협 등 시내 권역 직매장 위주로 출하처를 확보한다.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 원활한 출하가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전담 직원을 파견해 출하와 관련한 지원 통합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체 대화방 운영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도 유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신혼부부 · 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

청년 3000 · 신혼부부 4000 · 자녀 1명 이상 5000만원 무이자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익산시는 23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주택과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하며, 미혼청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4,000만원, 자녀 1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는 5,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익산시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세대에 22억4,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무이자 용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주소정보시설 대상

전수조사 · 안전조치 실시

군산시는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 5만4,387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시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다.

주소정보시설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군산시는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노후되거나 훼손된 경우 위치 파악의 혼선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물의 오염·변색·망실 여부를 비롯해 설치 위치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오류 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주소정보시설은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볼트 조임, 수목 점검 등 안전조치를 병행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18~39세 전국 창업자 대상, 공간 지원 · 투자 유치기회 제공 등... 청년창업가 본격 육성

익산시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에 힘을 실는다.

익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모집을 통해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18~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예비창업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5실로, 2인실 1실과 1인실 4실이다. 사용료는 1년 기준 2인실은 119만6,420원, 1인실은 각 38만7,430원이다. 다만 개별 공사자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바이오·홀

로그랩·주영리 등 지역 주력 산업과 디자인·광고·마케팅 등 입주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분야다. 산업 간 융·복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입주기업은 익산청년시청 내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익산'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투자 유치(IR)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jwon2da@korea.kr)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 지원을 넘어 교육과 네트워크 확대, 투자 연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 스마트팜 개소

자활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

군산시는 지난 23일 미성문화길 4-5(구 미성동주민센터)에서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사업 참여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6억8,4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3,200만원을 투입했으며, 군산시 공유재산인 구 미성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자활사업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교육 환경과 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75평 규모로 조성된 자활 스마트팜은 자동 온·습도 조절과 수경재배 시설을 갖추고 로메인상추와 버터헤드 등 고부가가치 채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오우영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이전과 개소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지역 자활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 11명 채용... 기업에 월 70만원 · 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

군산시는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촉진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 1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미취업 청년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중이어야 하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에는 수습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계(☎063-454-234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청년 고용 안정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내달부터 성인 강좌 3개 · 어린이 강좌 1개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예술의전당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문화예술아카데미 4개 강좌에 참여할 수강생 9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인 강좌는 3개로 △미술이론 △한국화 표현기법 △수채화 표현기법을

운영하며, 어린이 강좌는 미술로 표현하기를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강료와 일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